

광주공항과 통합 ‘탄력’… 환 황해권 물류·교역 전진기지 기대



고속철 연결… 무안공항 활성화 ‘청신호’
국제선 유치·인프라 확충 등 시설 확대될 듯
서남권 저점공항 육성 위한 접근성도 개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무안공항 시설 개선 사업 등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남권 저점공항 육성을 위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해 향후 환 황해권 물류·교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꼽힌다.

◇광주-무안공항 통합 논의 탄력 받아=지난 2007년 11월8일 무안공항 개항과 동시에 기능을 이전하기로 했던 광주 민간공항 통합문제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무안공항 개항에 따라 광주-무안공항 간 고속도로도 개통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통합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무안공항 통합시 무안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32만명에서 2020년 통합 후 2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무안공항 시설 확대도 탄력=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

제선 유치, 인프라 확충 등 숏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프라 확충의 경우 매년 국비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보잉 747 등 대형 여객기와 화물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2800m였던 활주로를 3200m로 늘리고, 9만1000㎡ 크기의 계류장은 14만6000㎡로 확장하기 위해 애를 썼다.

기존 규모로는 화물 주력 기종인 보잉 747 이용이 어려워 항공물류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짧은 활주로 탓에 중량 400t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제한돼 미주와 유럽 노선 화물기 이착륙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개항 이듬해인 2008년부터 수차례 시설 확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용객 수가 적다는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밀려 보상비 46억원을 뺐을 요사업비 350억원의 지금껏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신성장축 형성 및 물류·교역 거점 역할=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연결은 접근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의 샤를드골공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스페인 바라하스 공항, 노르웨이

가드데르모엔 공항, 일본 간사히 공항, 중국 푸둥공항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무안공항에 호남고속철도가 경유할 경우 향후 환 황해권 물류·교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수요 또한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호남권역만 5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1)과 연계한 국가 신성장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안철도(목포~부산 구간), 서해안철도(인천~목포 구간)와 연계되면서 서남해안권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항공정비 단지 조성도 서둘러=전남도는 공항 인프라 확대를 위해 항공정비(MRO, Aircraft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산업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MRO단지가 조성되면 파급효과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무안공항 주변 39만 6000㎡ 부지에 ‘국가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비행훈련센터와 소형항공기 격납고·정비장 등 항공분야 지원시설 조기 건립을 비롯해 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금융·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무안공항 활성화와 함께 항공산업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최영익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담(EAS)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평화와 번영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역할 강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수도인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등 역내 현안을 놓고 주요국 정상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달성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가를 통해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성원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각국 정상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회의에서 다수 정상들은 주요 국제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아세안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역내 현안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난해 부산에 자급세탁 방지기구(FATF) 교육연구원(TREIN)을 개원하는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각국 정상은 회의에서 채택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차단, 빈곤 완화 협력 등과 관련한 성명이 지역과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상 차원에서 정치적 의지를 끌어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AS는 미국과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상위 전략 포럼이다. /연합뉴스

靑,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하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한국당 “예산국회 어려울 것”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야권의 반발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질 등 정국 경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곧바로 국회에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시그널로 읽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기한이 오늘까지”라며 “만일 오늘까지 채택 되지 않는다면 15일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하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

의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부터 열을 안에 국회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더라도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는 ‘오기정지’를 한다면 앞으로 예산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예산 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광주광역시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원동, 산월동, 신창동, 도산동, 소촌동, 송정동, 운남동, 월계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

사업지 현황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